

「아시아디자인문화학회」 설립취지  
-풍요로운 생활문화의 창조 및 계승·발전을 위해-

오늘날 우리들은 인류의 역사상 가장 발달·발전했다고 말하는 문명사회 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발달·발전이란 무엇일까요?

문순기후의 풍토 안에서 면면히 이룩해 온 아시아의 생활양식은 매우 다양하면서도 많은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예로부터 지역의 개성을 담아낸 생활 속 디자인은 생활 속에서 실천하며 축적되어온 선인들의 지식·경험 속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그 궤적을 담고 있는 역사를 펼쳐내면서 현재를 이해하고 미래를 향한 생활 속 디자인이 나아가야 할 이상적 방향성을 탐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들은 어디에서 온 것인가, 지금 어디에서 있는가, 어디로 가려 하고 있는가?」를 묻는 「인심(人心)의 화(華)」라는 디자인 이념을 바탕으로 두고, 지역의 개성을 존중하며, 귀중한 지역자원의 적절한 활용을 기초로 생활 속 디자인의 실천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 실천을 통해 진정 풍요로운 발달·발전을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아시아의 많은 국가·지역은 자연에 대해 「아깝다, 감사하다」라는 정서와 생활신조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거기에는 자연을 귀중한 존재라 여기고, 「자연과 함께 살아가자」라는 이념이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은 **Globalization** 안에서 보편화된, 「인간이 자연을 관리한다」라는 이념과는 크게 다른 것입니다. 자연을 관리의 대상으로 파악하지 않고 「인간과 공생(共生)하는 존재」로 받아들여 온 아시아 사회에서의 생활 속 디자인에 관한 지식·경험은 현대사회를 향한 소중한 자산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각각의 지역(로컬)에서 성장한 생활 속 디자인이 현대사회가 안고 있는 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최근 「로컬」과 「글로벌」의 개념융합인 「글로컬」이라는 새로운 말이 대두되고 있는 것에서도 볼 수 있듯이 21세기의 생활 속 디자인은 실천적인 가치를 갖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우리들 아시아 사회에서는, 각각의 나라·지역민들이 축적해 온 지식·경험을 살리고 새로운 「생활 만들기」를 목표로 실천하는 디자이너·교육자·연구자·행정담당자가 많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또한 그러한 유능한 인재를 기르는 교육기관과 연구시설도 확충되고 있으며 동시에 그 이념을 따르는 유능한 인재가 활약하는 장소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러한 이념과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 서로의 의견교환과 학술적이고 실질적인 실천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아시아디자인문화학회」를 설립하고자 합니다.

「아시아디자인문화학회」를 통한 효과적인 지식, 정보, 경험의 교류와 활용으로 아시아 더 나아가서는 세계의 「풍요로운 사회」형성에 크게 공헌할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